사순 제 4 주일
제 1 독서 : 2역대36, 14-16. 19-23
제 2 독서 : 에페2, 4-10
복 음 : 요한 3, 14-21

숲정이

"하느님은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주셨다" (요한 3, 16).

강 론

"등 대"

범 영 배 신부/주현동 천주교회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밝히려 오신 예수님!

당신을 빛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전국 어느 곳을 가든 당신의 상징인 십자가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따르려는 사람이 많은 우리 주위는 밝지 못한 어두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예능계 대학 입시 부정, 국회의원들의 뇌물 외유, 수서지구 특혜 분양 등의 구조적 비리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의 생명을 소홀히 하는 일 등.

온통 세상이 악의 소굴처럼 어둠 속에 덮여 있는 듯합니다. 정말 이러한 어둠만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악의 어둠을 몰아내고 당신의 빛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나 밝지 못한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 과연 착한 사람들이 없어서일까?

본당에서 남들 모르게 선행을 베풀고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게 된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보면 세상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희망적이라 생각된다.

출렁이는 파도를 헤치고 항해하는 선박에게 등대는 길잡이가 된다. 세상의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길잡이가 된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며 자신을 희생하는 제자들은 어둠 속의 빛이 되며 길잡이가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로만 하고 실제 행동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밝지 못한 어둠이 득실거린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남은 사순절 동안 희생과 자선을 통해 이웃에게 빛과 길잡이가 되도록 노력하며 더욱 성실하게 지냄으로써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다짐해야 하겠습니다.

소 리

"이른바 다국적군"

하늘에서 내려다본 걸프전쟁은 집단폭행에 비유되고도 남을 것 같다. 한 나라, 더구나 선진국도 아닌 자그마한 나라를 향해 초강대국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비행기가 벌떼처럼 달라붙으며 폭탄을 퍼부어댔다. '초전박살'이 되지 않은 것만도 희한하다. 결정적 '화학무기'조차 쓰지 않고 43일간을 버티어냈으니 더욱 신통하다. 이 싸움의 승패는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결판이 나 있었기에 너도 나도 강자의 편에서 제 몫을 챙기느라고 야단스러웠다. 참전국 29개국에 지원국이 50여개국이나 된다. 그만큼 '다수'는 곧 '떳떳한 이치'로 통하는 법인가?

이 싸움의 근원을 여기서 길게 말할 계제는 아니지만 명분상의 논리로 보아서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 대한 응징 이전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침공부터 규탄했어야 옳았다. 규탄은커녕 오히려 두둔해준 미국이 이번에야 무력 윤리를 내세워 정의의 탈환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 응징 작전의 총수가 되었으니 출발부터가 대단히 정의로울 수 없었던 셈이다. 미국의 속내는 더 깊은 이권의 추구였다는 것이 전쟁 과정을 통해서도 적나라하게 노출되곤 했다.

이래서 거듭 잘 확인된 것은 '이기는 것이 정의'라는 '힘의 부도덕성'이다. 어느 세계적 석학은 걸프전쟁의 근본 원인을 '앵글색슨 패권의 추구'로 규정하고 '시초부터가 불의의 전쟁'이라고 규탄했었다. 어쨌든 이른바 다국적군이란 기름진 몫을 둘러싼 '정의의 탈'을 쓰고 저마다 '실속의 발톱'을 세워 무자비하고 무차별한 현대전의 부시버튼을 눌러댄 집단, 그런 억약부강(抑弱扶强)의 집단임을 하늘이 알고 또 보고 있다. 최

숲정이 산책

불이 더 잘 탈텐데…

사순절에 만난 사람들 ③

"동 혜 원"

"하느님 내 주시여,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 이리 묘하신고. 인간이 무엇이기에 아니 잊으시나이까. 그 종락 무엇이기에 따뜻이 돌보시나이까"(시편8, 2.5).

깊어가는 사순절, 하느님의 사랑이 더욱 인간 깊숙히 내려오심을 느끼게 된다. 이 은총의 때,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혜원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산기슭에 자리한 이 마을은 나환우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써 두 수녀가 이들을 돌봐주며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수녀들은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작은 자매전교회 소속인 서이멜다 수녀(64년 12월에 한국에 왔고 67년에 동혜원으로 왔음)와 나마리아 데레사 수녀(67년 봄에 동혜원에 왔음, 책임자)이다. 주로 이멜다 수녀는 환우들의 치료를 맡고 있으며 마리아 데레사 수녀는 환우들의 신앙교육에 힘쓰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어른 80명과 중고생 12명, 어린이 15명으로 40세대가 살고 있는데 거의 다 신자인 마을이다. 동혜원 공소는 53년에 시작된 것으로 신자들이 그 당시 고창 본당신부였던 김영일 신부를 찾아가서 스스로 공소를 짓겠다고 하여 완공된 것이다. 수녀들이 이곳에 왔을 때는 이미 이들 스스로가 공소예절을 하고 있었고 신앙이 무척 두터운 상태였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이들과 함께 매일 아침 저녁기도를 바치게 되었고, 성체도 매일 모시게 되었다. 이렇게 서로 같은 삶의 한가운데서 살다 보니 어느덧 외국인이라는 느낌은 자취를 감추어버렸다. 그들의 기쁨과 고통 속에 뛰어들어 밤낮으로 그들의 손발이 되고 찬바람을 쐬면서도 화기에 찬 모습은 실의에 빠진 환우들에게 평화를 주었고 서로 아껴주는 한무리가 되도록 재촉하였다. 가난함 속에 깃든 부유를 느끼게 한다.

또한 동혜원을 아껴주는 분들 중에서도 역대 고창 본당신부들의 사랑과 협력이 대단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깊은 신앙으로 인도해주었고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솔한 대화로써 힘과 격려를 주었으며 환우들의 신앙과 생활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주었고 본당신자들과 공소신자들이 협력하여 일할 수 있도록 본당 일에도 참여를 배려해주었다. 이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인격적인 관계가 필요했으며 일반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했다. 그리하여 이들이 자신의 열등감에서 벗어나 한 인간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게 된 것에 대해 수녀들은 기쁨을 느끼며 감사해 한다.

그리고 모범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한 형제를 소개해주었다. 그는 교회장을 맡고 있는 송봉춘(바오로, 58세) 형제인데, 자신은 정상적인 사람이지만 부인(원옥순·글라라, 58세)이 병에 걸렸기에 이곳에 와서 함께 사는 분이다. 그들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혼배하였고 진안 소토실 공소에서 한글과 교리를 가르치면서 살아가던 중 부인에게 이상한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고 여러 병원으로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으나 헛수고였다. 부인의 좌절과 실망의 모습을 보면서 동정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으나 내적으로 고통이 심하여 몇 년간을 떠돌아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부인을 만나보고 헤어져야겠다고 결심했으나 끊임없이 마음 안에서 되씹게 된 것은 혼배성사 때의 약속이었다. 결국 떠나지 못하고 살든지 죽든지 부인과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정착했다. '사랑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하느님의 은총과 깊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 고귀한 삶의 선택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살면서 제일 먼저 양계를 시작했고 교회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지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게 식도암이라는 중병에 걸려 입원하게 되었고, "하느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려나 보다" 생각하면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지내고 있는데 전주에서 성령세미나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보기로 결심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의 자세로 성령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치유의 은사를 받아 완쾌되었다. 지금도 그는 "나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를 생각하면서 정겨운 눈으로 부인을 바라본다. 또한 그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수녀님들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수녀들의 사랑의 삶이 그들에게 커다란 등대가 되었고 용기가 되었던 것이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는 것', 소외당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과 어울려 살며 작은 예수를 만나는 행복 속에서 부활에로 향하는 갈바리오의 발길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황수경산부인과
여의사 산부인과전문의 황수경(크리스티나) 이승렬(엘리아)
관통로 서울신탁은행 건너편골목
☎ 84-7272

주단·침구·혼수 전문
부인주단
김한중(요한)
황인재(모니카)
전주시 전동 남문옆
☎ 84-7294

맥주의 참맛을 즐기십시오
카이저호프
*아르바이트생 모집(신자 환영)
☎ 85-8801
(한성여관 시거리)

잠 깐!

"지상 최대의 쇼"

지난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6주간의 걸프전쟁을 지켜보니 '인간은 피를 볼 때 쾌감을 느낀다'는 어느 작가의 말이 생각난다. 물론 이 말은 인간 내면 깊숙히 도사리고 있는 사악한 본성을 지적하는 말이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속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낚싯대로 물고기를 낚을 때 손끝에 와 닿는 쾌감이라든지, 남이 잘못되면 고소하다든지….

이번 걸프전쟁만 해도 그렇다. 전쟁의 미치광이인 후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서둘러 전쟁을 치러야 했던 부시의 속셈을 보면 유엔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 소련에게 중동 산유국으로부터 4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했고, 시리아에 10억, 터키에 90억 달러의 군사 원조, 중국에게는 월드뱅크(World Bank)로부터 1억 1천만 달러의 차관을 약속했다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욱 가증스러운 일은 인간의 생명과 평화는 뒷전에 두고 경제적인 손익을 계산하는 다국적군에 참여한 국가들과 우리도 한몫을 얻어내겠다는 일이다. 10만 5천여회의 융단폭격으로 15만명의 전사자가 발생했고 질병과 기근이 무방비 상태라서 앞으로도 사망자 수는 얼마나 더 불어날지 모른다는 데…. 이 엄청난 비극이 주도면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불꽃놀이를 보면서 진행되었음을 생각하니 웬지 나도 자꾸만 전쟁의 공범자라는 생각이 든다.

죄악은 하느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인간들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다시금 새겨야겠다.

교 구 소 식

※ 로마교황청 그레고리안 성가의 밤(로마교황청 성음악대학 합창단) : 3월26일(화) 오후7시30분 전북 학생회관 입장권－10,000원

1. 재무 평의회 : 11일(월) 오전10시 교구청.
2. 사제 총회 : 12일(화) 오전10시30분 천호 피정의 집.
3. 본당사목회 지도자 연수(임순남지구, 남전주지구) : 16일(토) 오후4시－17일 천호 피정의 집.
4. 축! 견진 : 17일 오전10시30분 진안 성당.
5. 성체 분배권자(수도자) 교육 : 20일(수) 오전10시 가톨릭센타.
6. 전북일보 천주교 고정란(7면) '성당의 종소리' 안내 : 11일(월)-종교 식민주의(정인섭 선생), 13일(수)-삶의 몫(최용준 신부), 16일(토)-큰 사람(홍보국).
7. 베소라 성서 안내 : 구약－10시～12시, 요한복음－오후1시～3시, 로마서－오후7시30분～9시30분, 매주 화요일 가톨릭센타 3층.
8. 고산 성당 100주년 기념 성전 신축 일일 찻집 : 3월11일(월) 9시－20시 가톨릭센타 휴게실.
9. 가톨릭 간호사회 전북지부 피정 : 3월17일 오전10시 가톨릭센타(간호사들의 많은 참석바람).
10. 자연법에 의한 가족계획 교육 : 12일(화) 10시30분, 미혼자, 임신·피임을 원하는 분. 가톨릭센타 별관4층 행복한 가정운동(85-5098).

● 성소모임 스승예수의 제자수녀회 : 3월17일 오후2시 서울 본원(02)984-4801. 전교가르멜수녀회 : 3월17일 오후2시 서신동 성당 수녀원(0652)74-9262. 파티마 성모수녀회 : 3월17일 오후2시 본원(0331)8-5883. 동정성모회 : 3월17일 오후2시 이리 성모병원(0653) 855-3783.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창조 질서 보전－(6)가끔 한번씩 쌓인 것들을 털어버립시다.

가끔씩은 음악을 듣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생활에서 쌓인 쓸데없는 집착을 벗어버리고 하느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우리 모습의 존귀함을 느끼고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요십이(918) 김병오

신규직원채용공고

1. 모집부문 : 남자 일반직 0명
2. 응모자격 : 고졸 이상 병역필 및 면제자
3. 제출서류 : ①자필이력서 ②주민등록등본 ③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사본 ④자격증 사본
4. 제출기한 : 1991년 3월 16일(오후2시까지)
5. 금융 계통 유경험자는 우대 채용
※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연락바람.

전주 복자 신용협동조합
☎ 88-4404, 83-0040

수 강 생 모 집
초·중·고등부·일반부
장소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55-4
위치 : 한일 고등학교 입구(구사제관)
서 신 서 예 학 원
원장 차 동 복(베드로)
전화 : 75-9529
야간 : 76-0640

우리전등
모범업소(조리사의 집)
박 성 환(즈가리아)
김 명 숙(엘리사벳)
전주시 서노송동 632-11(중앙성당앞)
☎ 85-8848

축! 개 업
진선미 웨딩드레스
가장 우아하고 세련된 웨딩드레스
맞춤 판매 대여 부케
폐백 의상 연주복 신부화장
이리시 목화예식장 옆
☎ 52-1187
정기연(치릴로).황인덕(미꼬라)

특수 헤어스타일
신부화장 · 드레스마춤 · 대여
최 윤경(유리안나)
미용실 · 미용학원
학생 수시 모집
해외 연수생 모집
이리시 중앙동 3 가 7－1
☎ 3－2496·2－8653

100주년 기념 성전 신축 일 일 찻 집
일시 : 1991년3월11일(월) 9시～20시
장소 : 가톨릭센타 휴게실
(한방차, 고산 곳감, 수정과, 생강차 등)
고산성당100주년기념사업 추진위
※ 연락처 : 73-4019

후부의 정성으로 만들었습니다.
놀부보쌈
오 재 천(안드레아)
정 봉 교(미카엘라)
효자동 우진아파트 앞
☎ 223-0297～8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량
사무실 82－9661　보좌신부 주 묵 성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노 승 남

※ 사무장 채용 : 영세후3년 고졸이상 30세～40세남자 사무실에 문의.
1. 본당 판공성사(시간－10시～12시, 후3시～6시, 후8시～9시) : 19일－중노1가, 20일－중노2가, 21일－인후동 동진APT, 22일－남노·신우APT, 23일－아중리 금상동.
2. 모임 : 자모회－오늘 공식미사후, 꾸르아－오늘후2시, 부녀회 상임위원회－13일 어머니미사후, 성령기도회－14일 저녁미사후.
3. 형제회 : 16일 후2시. 4. 노엘팀 모임 : 17일 공식미사후.
5. 부활 계란 : 각반별로 2판씩 30일까지 내주세요(그림과 2개씩 포장해주세요).
6. 금주청소 : 인후13·14·15반. 차주청소 : 인후16, 신우1반.

□ 지난주 봉헌금 : 682,790원 □ 교무금 : 848,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 신 일 균

※ 사순절 신앙강좌 : 제4강의 "우리 조상들이 지니셨던 신앙 김진소신부 12일(화) 저녁7 : 30. 1. 꾸르아 : 오늘 오후2시. 2. 요셉회·대건회 : 오늘 공식미사후. 3. 청년회 : 오늘 저녁미사후. 4. 자모회·안나회 : 14일 오전10시. 5. 성우회 : 17일 공식미사후. 6. 부활판공성사 : 13일－다가동, 중앙동, 고사동, 기타 14일－태평동, 완산동 15일－전북동 16일－학생 및 직장인, 성사시간 : 오후3～5시, 저녁7 : 30～9 : 00. 7. 교무금 미납되지 않도록 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복자신협 남직원채용 문의 전화 88－4404. 성당청소 : 16일 평화의모후Pr, 능하신정녀Pr.
금주전례 : 해설－오교성 독서·봉헌－육종만씨 부부 차주전례 : 해설－최옥남 독서·봉헌－안철조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526,300원 □ 교무금 : 1,271,00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양 석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김 종 석

※ 오늘은 사순제4주일 : 부활의 마음준비는 얼마나 하고 계신지요?
1. 청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성경읽기 : 마태오11장～20장까지. 3. 사제총회 : 12일(화) 새벽미사로 변경. 4. 반미사 : 4구 2반－14일(목) 5. 가정방문 : 13일－2구3·4반, 14일－2구5반, 15일－3구1·2반 6. 구역장·반장피정 : 11일 전동성당 오전10～오후5시. 7. 성당청소 : 구세주의 모친.
8. 예비자교리 : 공식미사후. 9. 판공일정 : 18일－1구역, 19일－2구역, 20일－3구역, 21일－4구역, 22일－5구역, 23일－6구역, 시간－오전10시～12시, 오후2시～6시.
10. 금주전례 : 해설－유만순 독서① 박귀철 ② 이춘봉 봉헌－하태중, 김대권씨부부 □ 교무금 : 355,000원
차주전례 : 해설－김경제 독서① 김봉길 ② 구영순 봉헌－양대한, 정한모씨부부 □ 지난주 봉헌금 : 247,51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웅

※ 오늘은 사순제4주일 ! 3월은 성요셉성월 !
1. 회의 : ① 반장회－오늘공식미사후 ② 프란치스코 3회－오늘오후2시 ③ 성심회－3월13일(수) 오후2시. 2. 모임 : ① 젠레무－오늘저녁미사후 ② 율뜨레아－3월13일(수) 저녁미사후. 3. 알림 : ① 헌혈－오늘공식미사후(신자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② 반모임－3월10일밤8시14반, 3월12일(화) 오전10시4반, 3월15일(금)밤8시15반, 3월19일(밤8시2반 ③ 봉성체－3월20일(수) ④ 91춘계판공성사－평일미사전후(부활축일전까지) 성사표는사무실에오셔서교부받으셔요. ⑤ 프란치스코3회1일피정－3월13일(수) 오전9시부터, 서학동성당 ⑥ 십자가의길－매주금요일미사후.

□ 지난주 봉헌금 : 581,150원 □ 교무금 : 380,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정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사순절 실천 : 미사 30분전 십자가의 길.
1. 레지오 마리애 단원피정 : 오늘 오후1시～5시(효자동성당 : 전원참석).
2. 여성 제34차 꾸르실료 : 4월4일～7일(3박4일) : 선착순 2명.
3. 주간 미사 변경 : 수요일 오후7시.
4. 중·고생 레지오 마리애 조직 : 3월 3일(토) 오후5시.
5.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식 : 다음주 공식 미사중(기도부탁).
6. 초등부 어린이 교리 : 매주 토요일 오후3시 미사후(어린이 미사책·교리서 지참).
7. 청소봉사 : 서완산동 2가 동편.

□ 지난주 봉헌금 : 436,080원 □ 교무금 : 815,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강 명 구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 안 득 수

＊ 주일(일요일)차 안타고오기. ＊ 주일미사 늦지 않기. ＊주일금배기 운동. 1. 자모회 : 오늘 오전10시. 2. 사목회 : 오늘 공식미사후. 3. 사순절 특강MV : "우리삶속에서 십자가를 통한 부활체험"－이현주(가타리나) 평신도－공식미사. 4. 구역봉사자모임 : 오늘저녁7시. ＊ 구역장·반장 1일피정 : 전동성당 11일 09 : 30～17시 남전주지구 모든 본당. 5. 가정방문 : 13일 : 전동8, 남노3·4 14일 : 동교1·2 15일 : 동완3, 서완3, 동교2·3. 6. 반기도회 : 12일～15일, 반미사 : 12일－전동3반, 13일－동교3반, 14일－풍남6반, 15일－동완산동3반. 7. 돈보스꼬회 : 13일(수) 저녁7시30분. 8. 구역반장회의 : 14일(목) 오전11시. 9. 아치에스 행사 : 16일(토) 오후2시. ＊ 금주보수비헌금액 : 1,823,000원 ＊ 현재모금총액 : 197,394,882원 ＊ 금주신입액 : 없음 ＊ 현재신입총액 : 242,719,618원 봉헌금 : 1,582,490원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 김 광 탁

1. 가정방문 : 13일 전5－4, 14일 전6－1, 후6－2, 15일 후7－1.
2. 영세자 집중교리 : 18일～22일, 후8시.
3. 남 전주지구 반회장 피정 : 11일 전9시30분, 장소－전동.
4. 평화 M. E 가족모임 : 12일 저녁8시, 장소－사제관.
5. 사목회 분과 부장 및 공소회장 피정 : 16일～17일, 장소－천호, (센타에서 후4시 출발)부장이 불참시 차장이 참석.
6. 교적 가져오고, 가져가기 운동 : 반 회장님 협조 바람.
7. 회의 : 제대회－공식미사 후, 성모회－다음주 공식미사 후.
8. 아버지 미사 : 매주 수요일 저녁7시, 미사후 사제관으로.
9. 차주전례 : 심상기, 독서－김나섭·정승자, 봉헌－경학범 부부

□ 지난주 봉헌금 : 715,200원 □ 701,500원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박 영 근

1. 성모회 : 공식미사후.
2. 십자가의 길 : 10일(일)－치명자산 오후2시 다가공원 입구 집결.
3. 가정방문 : 13일(수)－오전 : 동신APT 오후 : 평화주택·성원연립, 14일(목)－화산1가, 15일(금)－오전 : 삼정APT1 오후 : 삼정APT2, 20일(수)－화산2가, 21일(목)－오전 : 금화·송원 오후－신일APT·성원골드맨션. 시간 : 오전9시～12시, 오후2시반～6시.
4. 청소봉사 : 16일(토)－자비의 모후Pr. 23일(토)－은총의 중개자Pr.
5. 본당은 우리모두의 가정입니다. 교무금 남부를 부탁드립니다.
6. 금주 전례 : 장병순 독서·봉헌－김혜화, 신정균
차주 전례 : 한병갑 독서·봉헌－최정순, 정병열.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유 종 환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이 수 현
사목회장 황 수 석

※ 오늘은 박시몬(전국성체회 회장)형제 특별 강론이 있습니다.
1. 사순절을 거룩히 지냅시다. ＊ 매 평일미사전 30분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성미운동과 돼지 살찌우기에 적극 참여합시다.
2. 부활 영세대상자 집중교리 및 영세식 안내 : 게시판 참조.
3. 순교자반 예비자 교리시간안내 : 일－10 : 30, 화－10 : 30, 목－후7 : 30, 일(중·고생반)－오후4시.
4. 레지오 전단원교육 : 오늘 오후1～5시(성당).
5. 8주간 영성강의 : 매주 화 후7 : 30(19일(화)－21일(목)).
6. 모임안내 : ① 율뜨레아－오늘 11시미사후 ② 모니카회, 데레사회－20일 오전10시.
7. 가정방문 : 게시판 참조.

□ 지난주 봉헌금 : 1,069,460원 □ 교무금 : 1,738,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박 창 신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김 흥 두

1. 율뜨레아 : 공식미사후. 2. 판공성사 : 12일(화) 20 : 00 현대6반, 13일(수) 14 : 00 여래만절리, 20 : 00 무궁화·용성, 14일) 목) 14 : 00 거성, 20 : 00 신주1·2, 15일(금) 14 : 00 두현리, 20, 00 중앙.
3. 부활성가연습 : 매일저녁7시30분. 4. 3월중 은혜의밤, 철야기도회 개최 : 3월15일(금) 오후10시～16일(토) 오전4시반. 초청강사－고마리아. ＊ 차주모임 : 사목회, 새벽회, 애령회.

신축헌금 총신입액 : 75,250,000원 지난주 봉헌액 : 550,000원
금주전례 : 해설－박명래 독서① 박남철 ② 김정혜 기도－나귀준, 박혜숙
차주 전례 : 해설－강진상 독서① 점이용 ② 박춘근 기도－오우진, 최규자.

□ 지난주 봉헌금 : 804,130원 □ 교무금 : 1,183,000원